

# 제주 전입 하락세... 3040 인구 '썰물'

## 제주도·제주연구원 인구정책 도민토론회

### 전입인구 2017년 4만1752명→2018년 3만9189명 작년 30~40대 생산연령인구 전출 역대 최대 기록

제주도 생산연령인구인 30~40대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인구변화,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39회 제주미래포럼-인구정책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앞으로 제주의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유·출입 실태와 시사점'을 설명했다.

우선 최근 10년간 제주 전입인구 추이를 보면 2009년 2만902명에서 2017년 4만1752명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만9189명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령별 제주 전입인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10대 이하 전입인구는 2009년 4210명에서 2015년 7064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6911명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을 보

면 20대(5.8%)와 60대 이상(1.8%)를 제외하고 30대(-1.0%), 40대(-0.7%), 50대(-1.3%)는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전출인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2만1917명에서 2012년 2만345명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3만336명으로 전출인구 3만명을 돌파했다.

연령별 전출인구 증가율을 보면, 골고루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10대 이하 5.0% >20대 7.3% >30대 3.6% >40대 10.0% >50대 11.7% >60대 이상 14.2%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30~40대)와 핵심생산연령인구(10대 미만)의 전출 증가세다.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2012년 1만

6661명에서 최저선을 찍고 지난해 2만5148명으로 급증했다. 또 핵심생산인구 역시 2013년 1만360명으로 가장 낮아졌다가 지난해 1만480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출인구의 제주 거주기간은 평균 2.2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평균 거주기간을 보면 >10대 이하 1.7년 >20대 2.6년 >30대 2.3년 >40대 2.2년 >50대 2.1년 >60대 2.2년 >70대 2.4년 등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위원은 3040세대의 이동 요인으로 '일자리'보다 '자녀교육'으로 꼽고 '일자리 및 초등교육서비스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주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 경험 지원, 여가문화서비스 기반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4·3 희생자·유족 1217명 추가 요청

## 4·3실무위원회 원안 의결... 중앙위 결정 남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제167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조사가 완료돼 상정된 1217명(희생자 9명, 유족 1208명)을 원안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희생자 9명은 사망자 6명과 행방불명자 2명, 수형자 1명이며 수형자는 군사재판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3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총 10차례(2018년 7월 2일~2019년 5월 31일)에 걸친 심사를 통해 제6차 추가 접수 신고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접수된 2만1392명(희생자 342, 유족 2만1050) 중 1만2087명(희생자 264, 유족 1만1823)을 심의·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4·3실무위원회를 개최해 4·3 희생자 및 유족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4·3실무위원회가 심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앙에서도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대중앙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월 22일 현재 읍·면·동에 총 4879명이 신청했다. 표성준기자

# 제주 어린이 치아건강 '빨간 불'

## 5세 아동 충치유병자율 44%로 전국 최고

제주 어린이 치아 건강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만 5세 및 12세 아동 4만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아동구강 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의 5세 아동 유치우식(충치)유병자율은 4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서울(30.7%)과는 13% 이상 차이가 났다. 아울러 '우식유치율'도 35.5%,

'유치치료필요자' 43.5%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충치를 치료한 것을 말하는 '충전유치율'은 5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주 5세 아동의 충치발병이 가장 높지만, 치료는 가장 낮은 말이다.

제주의 12세 아동 역시 우식영구치율 16.3%, 상실영구치율 0.2%로 가장 높은 반면, 충전영구치율은 83.1%로 꼴찌를 기록했다. 송은범기자

# 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일당 3명 검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체류지역 이탈·알선)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김모(53)씨와 중국인 알선책 X(42·여)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운반가담자인 내국인 한모(31)씨와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리모(3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리씨를 승합차 내 이불 속에 은신시킨 뒤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제주해경 외사제가 추적 중인 인물로, 적발 당시에는 해경으로부터 김씨의 차량번호를 통보 받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해 제주항 6부두에서 탈미가 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SNS를 이용 불법이동자를 모집·알선했으며, 육지로 이동시키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용의자 차량번호를 제공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협조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공조활동으로 무사증 불법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6월이 되니... 해수욕장도 북적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협재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4·3 UN 인권 심포지엄

## 6월 20일 미국 뉴욕 UN본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대사 조태열)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강창일 국회의원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이 공동 주관하는 '제주4·3 UN 인권 심포지엄'이 오는 6월 20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 강우일 주류가 주제발표한다. 또 한미 현대사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와 존 메릴 전 미국무부 동북아시아장, 폴리처상 수상자인 찰스 핸리 전 AP통신 편집부국장 등 유족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표성준기자

# 정신건강 위험 '관심군' 학생 1300명 ↑

## 도교육청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3년 연속 전체의 5%대

교육당국이 다양한 정서·행동발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심리 지원이 필요한 도내 '관심군' 학생은 최근 3년간(2017~2019) 매년 1300명을 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5월 도내 초·1·4, 중 1, 고 1 학생을 대상으로 '2019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1418명(5.3%)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357명(5%), 2018년은 1496명(5.8%)으로 3년 연속 5% 정도의 학생들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자살위험척도를 살펴보기 위해 자살위기·시도

관련 문항을 합산해 파악한 결과 '자살위험군'은 올해 359명(중 211명, 고 14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71명(중 203명, 고 168명)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보다 세심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관심군' 학

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개별상담과 검사 등 2차 조치인 심층평가를 진행중이다. 현재 36%가 이뤄졌지만 100% 완료 여부는 미지수다. 2017년 전문기관 2차 조치 현황은 73%, 2018년은 79%에 그치며 일부 학생들은 심리 지원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도교육청은 향후 심층평가 실시 지원 강화를 비롯해 '자살면담지'를 활용한 3단계 자살위험군 학생 관리, 학교별 혼디거넛팀 운영을 통한 관심군 학생별 지원 방안 협의, 교원 자살예방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이산화탄소를 지우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환경을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2018년 한국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대상) 한 수상자의 작품입니다.